

## 첫 세미프로젝트 (03. 13~03. 20)

양연수

맨 처음 조원들이 구성이 되고 다른조들보다 한명이 부족했기에 한 명이 부족한 퀄리티의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날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면서 조원끼리 적극적이지만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히 회의록을 작성하는 조장이 있어서 나누었던 의견과 내용들을 까먹지 않고 다시 찾아보며 수정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정리를 하면서 하루동안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내일은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잘 보여서 다음을 진행하는 데에 원할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서로 풀리지 않는 부분을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서로 문제를 풀어주었고 팀원이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이 보일 때 격려와 배려를 보이며 이끌어주었습니다.

'증명서 출력'으로 주제를 정한 뒤 생각이 나는대로 코드를 먼저 짜보았습니다. 팀원들과 상의 없이 그저 제 방식대로 코드를 한번 짜보았었는데 다음날 팀원들에게 제가 짠 코드를 보여줬을 때 저희가 배운 내용을 모두 적용시켜야 했고, 어떻게 클래스와 메소드를 나눌지, 변수명도 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 코드가 팀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일단 팀원들과 큰 뼈대와 플로우 차트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를 어떻게 나눌건지, 메소드를 어떻게 나눌건지, 그 다음 변수명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론 기능들을 언제 어떻게 어느부분에서 무엇을 사용할건지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던거 같습니다. 저희조는 맨 처음 배열에 담았다가 다른 부분에서 만들었던 배열을 참조하여 다른 부분의 코드를 구상할 때 배열로 풀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발표하기 며칠 전날 배열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배열을 없애면서 엮여있는 부분들을 모두 고치고 변경하는 부분에서 또 많은 고민을 해야했기에 처음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바를 배울 때 그저 강사님이 주신 예제만 풀었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는 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첫 부분을 잘못 선택하고 풀어나가는 와중 에러가 발생하고 그 에러를 잡으면 다른 에러가 발생해서 발표 전날까지 에러를 잡는데 팀원 모두가 애를 먹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고 기본적인 부분도 헛갈리면서 부족함이 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발표 준비 역시 코드는 완성되지 않았고, 발표 날은 다가오고, 초조함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발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피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게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팀 프로젝트라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모습이지만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요번 프로젝트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나아진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게 될 팀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제 자신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좋은 팀원들을 만나 미흡한 저를 잘 이끌어준 저희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